

## 대기업 정책(Ⅱ) - 결합재무제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김대홍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1999 사업년도부터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무 구조의 건전화를 촉진하기 위해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합재무제표란 기업 집단 전체의 자산, 부채, 매출액, 손익 등을 결합시킨 재무제표이다. 대부분 국내 기업들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계열사간 거래의 상계 처리로 자산·자본과 매출액이 감소하며 부채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외형의 감소와 수익성 저하, 부채 비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그룹 전체의 경영 실상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들은 외형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적 부가가치(EVA)와 같은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배경과 이해

정부는 IMF와의 합의 사항에 따라 결합재무제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시기는 1999 사업년도부터 적용하고, 50대 재벌 그룹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벌 그룹들의 부도 사태 이후 신용도 하락에 따라 경영 실상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정부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통해 기

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 구조의 건전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결합재무제표란 기업 집단 전체의 자산, 부채, 매출액, 손익 등을 결합시킨 재무제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결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연결 기준은 지주회사마다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30% 이상이며 최대 주주인 경우도 포함)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연결하게 되어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지주회사간의 거래를 반영하지 않게 되므로 기업 집단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결합재무제표는 기업 집단 모든 계열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고 있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 대상을 지분율 기준에 의해 선정하고 있다. 반면에, 결합재무제표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실질 지배력 기준에 의해 계열사 전체를 결합시키고 있다(〈표 1〉 참조).

결합재무제표는 세계 주요 국가 모두에서 작성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현재는 연결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연결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관련 회사들은 지분율에 해당하는 손익이나 배당금만 결산시 합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도 1999년부터 실질 지배력 기준에 의해 자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외국 기업

들을 대상으로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현행 회계 기준은 연결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연결 대상에서 벗어나는 관련 회사들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순이익이나 배당금만 결산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도 2000년부터는 결합 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U의 경우는 실질적 지배력 행사를 기준으로 하는 결합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볼 수 있다(〈표 2〉 참조).

실질 지배력 기준이란 다음 조건 가운데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미국 회계기준위원회(FASB: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정의). 첫째로 다수의 의결 지분(40% 이상)을 소유

〈표 1〉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의 비교

구분	연결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범위	일정 지분율 이상	실질 지배력을 가지는 경우
대상	지주회사마다 개별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그룹 계열사 전체

〈표 2〉 국가별 기준 및 대상

국가	기준	대상
한국	결합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미국	결합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일본	연결	· 50% 이상의 지분 소유 기업
EU	결합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국제회계기준	결합	·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하고 있는 경우, 둘째로 회사의 운영위원회(이사회) 후보 지명 절차를 지배할 수 있으며, 위원 선출시 투표자의 과반수를 투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셋째로 과반수 의결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증권을 소유하여 의결 지분의 과반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넷째로 어떤 실체를 해산시킬 수 있고, 그 해산으로 인해 자산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이다. 한편,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sup>1)</sup>도 실질 지배력이란 '他회사의 재무와 영업 방침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EU의 회계 기준에서는 '주

회사가 母회사의 통일적 지휘 아래에 놓인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 결합재무제표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그룹 계열사간의 상호 거래를 상계시켜야 한다. 즉, 계열사 지분, 출자금, 관계 회사 유가 증권, 매출액 등을 계열사간 자산·자본·부채·매출액 합계에서 제거해야 한다. 대부분 국내 기업들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면 계열사간 거래의 상계 처리로 자산·자본과 매출액이 감소하며 부채 비율이 증가

1) 국제회계기준은 공인 회계사들의 국제 기관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 IASC)에서 제정한 것으로 세계 각 나라간의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 기준과 절차에 대해 조정과 발전을 위한 회계 기준임.

될 수 있다. 특히, 내부 거래 의존도가 큰 그룹일수록 매출액 감소폭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외형의 감소와 수익성 저하, 부채 비율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그룹 전체의 경영 실상을 본질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은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따른 외형 감소와 수익성 저하에 대비하여 매출 위주의 외형적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수익성 중심의 경영 활동을 전개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 및 평가를 실행하도록 한다. 이 방법은 기업 본연의 업무인 영업의 부가가치 활동을 중시하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다. 경제적 부가가치법(EVA)은 기회 비용적 측면에서만 생각했던 자기자본 비용을 타인자본 비용과 동일시한다. 따라서 이 방법을 기업의 경영 활동에 활용하게 되면 외형 성장 위주의 전략을 펼쳤던 국내 기업에게 내실 경영을 다질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이다.

부채 비율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규모 감축과 자본 규모의 확충을 통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자산 측면에서 재고 자산 보유의 최소화, 매출 채권의 조속한 현금화, 유휴 고정 자산의 매각 등 불필요 자산의 규모를 간결화하도록 한다. 자산 규모의 축소는 부채 비율의 증가분을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자본의 규모를 확충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상 증자, 자산 재평가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자산 재평가는 최근 정부에서 기업 및 금융 기관의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그 조건을 완화하였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본 규모를 확충시키면 부채 비율의 증가 부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